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2일 수요일 음 8월 3일 (10월)

기상정보

21~26℃

파고 1.5~3.0m

북동풍

파고 1.5~4.0m

22~26℃

파고 1.5~3.0m

22~27℃

제주고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확률

오후

60%

제주

30%

60%

성산

30%

60%

고산

30%

6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3/27℃

모레

흐리고 비

23/28℃

월드뉴스

트럼프 “사기” vs 우드워드 “사실”

‘공포’ 출간 D-1 공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난맥상을 그린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작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 출간을 앞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우드워드를 공격하는 트윗을 연거푸 올렸다. 그는 “우드워드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보원 같은 거짓말쟁이”라며, 그의 저서는 “사기”,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발간되는 우드워드의 저서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음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NBC방송 ‘투데이 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우드워드에게 “악명의 출처가 대부분인데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민주당은 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내가 진짜 책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드워드는 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자신의 책이 ‘소설’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책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악명이 아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지가 나온다”며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말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로 현재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인 우드워드는 ‘공포’ 출간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 100여명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파장을 일으킨 뉴욕타임스의 악명 기고문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강&칼럼



이 방 훈
의학박사·재활의학전문

4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3일전부터 손가락과 손목관절에 통증이 있고 약간 부어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으나 하루 만에 좋아졌다고 한다. 또 다른 50대 초반 남성 환자는 일주일 동안 양쪽 무릎이 아프고, 관절주위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였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 이러한 증상이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통증이 가볍게 왔다가 급방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점차로 재발이 자주 일어나고, 반면에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졌다고 한다. 두 환자 모두 정형적인 재발성

관절이 이유 없이 자주 아프세요?

류마티즘 증상이다.

재발성 류마티즘은 1942년 Hench와 Rosenberg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반복적으로 급성 관절염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질환이다. 관절이 갑자기 붓고 빨갛게 되고 관절에 압통이 있고, 관절주위가 심하게 붓고 결절이 생기기도 한다. 발작은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 일간 지속되다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절염 발작이 수 일 내지 수 개월에 한 번씩 나타난다. 발작이 없는 기간에는 전혀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동, 음주, 과로 등의 유발인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관절을 망가뜨려 장애를 초래하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발되는 빈도는 규칙성이 없다. 잘 오는 관절은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이다. 남 녀 비슷하게 발생하고 나이는 20~50대에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전신 증상은 그다지 없다.

드물지 않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바

른 진단을 받기가 어려운데, 전문분야 의사가 아니면 이 질환에 대해 잘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우나 임상소견과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면 재발성 류마티즘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통풍이나 베타 병과 같은 질환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후와 진행은 지속적으로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되는 경우는 48%,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33%,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는 15%, 기타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4%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관절의 손상 같은 후유증이 없으므로 초기에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최대한 빨리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 따라 특별한 유발인자가 있는 경우는 이를 피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주감귤 미래 찾는다



이 성 돈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제주감귤박람회가 올해로 벌써 6회차에 접어든다. 1991년에 서귀포의 감귤 재배 농업인들이 모여 ‘서귀포 농업전람회’로 시작한 행사가 2013년부터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박람회로 성장해 6회에 이르고 있다. 또한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면서 전 세계인이 관심 갖는 국제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세계를 보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감귤품종전시관, 농업기술관, 감귤산업전시관, 비즈니스 전시관 등 6개의 전시마당을 비롯해 감귤전문가 컨퍼런스, 농업기술 정보 공유, 홍보·판

매, 해외 교류 등으로 진행된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경 행위가 시작되었는데 이후의 농업의 발전 흐름을 보면 화폐가 유통되기 이전까지의 농업은 ‘생계형 농업’이었다. 이 시기의 감귤은 생계유지를 위한 작물이기 보다는 향료나 약재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여년 전 근대화 물결과 함께 ‘환금형 농업’이 더욱 발전했다. 특히 온주 감귤은 감귤산업의 대동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부터 과수원이 조성되기 시작해 19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으로 육성되면서 제주도가 환금형 농업으로서의 성장 탄력을 받아 감귤주산지로서 자리잡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생계형 농업, 환금형 농업이라면 미래의 농업은 ‘가치형 농업’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역할에 가치를 뒀으나 미래 시대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번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제주감귤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제주 감귤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안전한 벌초, 즐거운 한가위



강 갑 수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장

벌초는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는 풍속으로 주로 백중 이후인 7월 말부터 추석 전에 이뤄진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 벌초를 하는데 이를 ‘소분(掃墳)’한다’고 부른다. 또한 ‘추석 전이 소분 안 하면 자왈 썩 맹질 먹으래 온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추석 전에 소분을 안 하면 조상이 덩불을 쓰고 맹질 먹으러 온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벌초철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말벌이다. 여름 폭염으로 활동량 및 개체 수가 증가해 말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

하게 한다. 증상이 자주 오고 심한 경우는 향말라리아제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인 경우 증상이 있을 때는 걱정을 하다가 증상이 없어진다면 그대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등의 자가 면역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에 덜 적극적이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경우 가끔씩 1~2개의 관절에 발생하던 관절염이 지속적으로 여러 관절에 동시에 발생하면서 진행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면 관절이 손상되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들 중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거나, 혈액 내 염증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제주시정 소식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애(憂) 희망을 말한다’ 도서 전시회
○ 기 간: 2018. 9. 10. (월) ~ 9. 21. (금). 2주간
(※ 도서관 일정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장 소: 한수폴도서관 1층 로비
○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치매 가이드북, 치매정보지, 치매관련 도서, 치매관련 리플렛 등
○ 문 의: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28-8861

“달달한 별빛콘서트 in jeju” 행사
○ 행사 명: 달달한 별빛 콘서트 in jeju
○ 행사일시: 2018. 9. 14. (금) 19:10 ~ 22:10
○ 장 소: 제주별빛누리공원 1층 실내홀
○ 대 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100명
○ 참가신청: 2018. 9. 7. (금) 19:00~ (참가비:5,000원)
○ 신청방법: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교육신청 Star.jeju.go.kr
○ 행사내용: 강연, 공연, 토크가 어우러진 형식의 천문과학 토크쇼
○ 세부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Event.1	19:10-19:40	초승달을 관측하자! (자율참석, 날씨가 흐리면 진행불가합니다.)
Program	19:40-21:30	천문과학토크쇼(주제:달) 달달한 노래와 함께 하는 달 이야기-공감을 생크나누기-재미 북독! 미술개그토크쇼
Event.2	21:40-22:10	별자리, 행성관측 (자율참석, 흐리면 천체투영실 상영합니다.)

○ 문 의: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064-728-8901

우리가족 골피부를 위한 “천연 스크림 만들기”
○ 일 시: 2018. 9. 15. (토) 14:00 ~ 16:00
○ 장 소: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3층 문화교육실
○ 대 상: 제주시민 40여명
※ 전화 및 방문 선착순 접수: 9. 11(화) 10:00~
○ 강 사: 박 현숙(골목공방)

○ 주 관: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 강의내용: 천연 스크림 만들기 체험과 함께 환경기 올바른 피부관리법 및 화학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강의
○ 문 의: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064-728-3957, 3959

2018년 10월 시민정보대학 수강생 모집
○ 교육 접수기간: 2018. 9. 17(월) ~ 9. 21(금)
(수강확정자 문자 발송: 9. 27(목) 09:00 이후)
○ 교육장소: 제주시열린정보센터 4층 제1교육장
○ 교육기간: 2018. 10. 1 ~ 10. 26 (각 30명)
○ 교육과정 - 인터넷: 09:30 ~ 10:30 - 컴퓨터 기초: 11:00 ~ 12:00 - 한글2010: 14:00 ~ 15:00 - 엑셀2010: 16:00 ~ 17:00
○ 교육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제주평생교육정보(http://jiles.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수강생 선정 기준
- 1순위: 신규신청자 우선 선정 -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선정 - 교육대상: 일반시민 (학생제외)
○ 기타사항
- 인터넷접수 후 수강생 선정기준에 의한 교육대상자 확정 후 교육 대상자에게 SMS(문자)발송
-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월 1과정만 신청이 가능
- 동일과정은 연2회 수강 제한
○ 문 의: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4층 강사실 ☎064-728-3951~2

문화경. 남경주. 오소연 주연 <유지컬 민역> 공연
○ 일시 및 장소: 2018. 10. 6(토) ~ 10. 9(화) / 4일 총 7회 공연
(일, 월, 화요일 3시, 7시/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주회 및 제작: 제주시 / 미소
○ 티켓가격: R석(1층) 5만원 / S석(2층) 3만원
○ 티켓할인: 도민할인(40%), 4.3 유적(50%), 학생 및 노약자(50%)
- 특별 할인(50%): 조기예매, 만력 주간(10. 21. ~ 27.), 만력탄생일 (음 10. 22일)생일자, 초연 공연 초대권 소지자, 10인 이상 단체예매 등
-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출 연: 문화경. 남경주, 오소연, 송목경 외
○ 제 작 진: 프로듀서_김미경 / 연출_김덕남 /대본_한아름 작곡_장소영 /안무_신선호 외
○ 문 의: 제주시 문화예술과 ☎064-728-2712

제주도정 소식

2018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안내
2018. 9. 30.까지, 마을 리사무소로 신고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인제개발원에서는 도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10월 정보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8. 9. 7. (금) ~ 9. 16. (일)
○ 교육과정: 포토샵 활용 등 6개 과정(9회)
○ 교육인원: 과정당 30명 내외
○ 교육장소: 도민정보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삼북회관) 5층)]
○ 교 육 비: 무료 [교재비: 본인부담
(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교재 사용시 무료)]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인제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edu.jeju.kr, 로그인후 수강 신청)
○ 문 의: 인제개발원 사회교육과 710-7434, 도민정보센터 710-2376

9월 독서의 달 책 잔치 “함께 해요! 작은 도서관”
○ 일 시: 2018. 9. 15. (토) 10:00 ~ 16:00
○ 장 소: 한라도서관 일원(시청각실, 야외 잔디광장 등)
○ 대 상: 작은도서관, 독서관련단체, 학생 2,000여명
○ 주 최: 한라도서관/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행사내용
- 공연내용: 동화나라 북(Book) 인형극, 작은도서관 음악회
- 북 콘서트: <빨주노초파랑보> 액저콘서트
- 전시, 체험 마당: 23개 작은도서관 독서관련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 시: 2018. 9. 6. ~ 10. 18. (매주목 10:00~12:00)
○ 장 소: 한라도서관 강의실
○ 대 상: 제주도민 50여명
○ 주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라도서관
○ 강연내용: • 역사와 지식의 프로메테우스를 만나다.
○ 문의: 한라도서관 ☎710-863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8년 10월 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수채화, 오카리나, GTQ포토샵, 플로리스트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 등 12개과정 등 315명
○ 교육기간: 2018. 10. 1일부터
○ 모집기간: 2018. 9. 17. (월) ~ 9. 19(수)
○ 수강신청방법: 설문대여성문화센터(http://swcenter.jeju.go.kr)홈페이지를 통한 수강신청
○ 교육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의실 및 커피교육학원
○ 문의전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710-4202)

주간농업농촌소식

국조생 은주밀감 “부패과” 줄이기 실천 요령
□ 성숙기 흡즙해충 철저한 예찰과 방제
○ (충채벌레) 8월 하순, 9월 중순 적용약제 살포
○ (노린재, 초록예데미등 등) 8월 중하순, 9월 상중순 적용약제 살포
○ (달팽이류) 8월 하순 ~ 수확기 방제 철저
- 달팽이 유인제를 해질 무렵 나무 주변에 살포
□ 성숙기 품질향상제 살포
○ 시 기: 8월 중순부터 15 ~ 20일 간격 3 ~ 4회 살포
○ 살포농도: 제품별 살포 농도에 맞게 사용 (300 ~ 500배)
□ 수확기 부패방지 약제 살포
○ 수확기 잦은 비 날씨와 고온다습으로 인해 과피에 수분이 많음
○ 산합당 급격한 감소: 저장력이 떨어짐
○ 수확 전 부패방지 약제 살포
- 스프로곤(수확 5일 전), 벤레이트·톱신엠·해비치(수확 7일 전), 베투란·벨크트(수확 14일 전)
○ 비가 온 후 3 ~ 5일 정도 맑은 날 지후 수확
○ 수확 시 상처 및 충격 주의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2)